

리볼빙·현금서비스 감소세... 카드사, 연체율 완화 청신호

카드사 9곳 현금서비스 6.5조
지난해 11월 부터 매달 줄어
리볼빙 잔액도 3개월째 감소
카드론은 5개월째 늘어 '주의'



현금서비스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누적잔액이 줄어 들면서 카드업계에 '청신호'가 커졌다. 해당 금융상품 모두 카드론 대비 상황이 어려운 구조인 만큼 연체율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278억원이다. 지난해 11월(6조9463억원)을 시작으로 매달 감소세다. 리볼빙 잔액도 지난해 말(7조5505억원)을 기점으로 3개월째 줄어 들고 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년 동기(6조5320억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불과 42억원 차이이다. 카드업계에선

신용점수가 똑같더라도 카드론 대비 연 1~3%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성과급 등 여윌돈이 생기는 시기에 우선 상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월 카드사 9곳 모두 신용점수 300점 이하의 차주에게 현금서비스를 취급했다. 해당 구간의 평균 금리는 연 19.10%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지급 상

한은 신용카드 한도의 30~40%로 제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채무이행이 수월했을 것이라 해석했다.

카드업계는 리볼빙 잔액 축소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리볼빙 누적 잔액은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카드 대금의 10%만 결제해도 처음 한두달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의 급전창구로 사용된다. 금융당국도 리볼빙 잔액 관리를 두고 카드사를 향해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결제', '최소결제'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 16~1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한때는 '똥똥한 수입 창구'였지만 연체율 증가 시기에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대비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까다로운 금융 상품이다"라며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신규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카드론 잔액은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월 카드론 누적 잔액은 39조4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속도라면 상반기 내 카드론 누적잔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대출 상품 중 상환 기간이 가장 길고 금리도 낮은 편에 속하지만, 연체율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지난달 카드사 9곳이 취급한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연 14.55%다. 단,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으로 낮춰서 살펴보면 연 17.52%로 상승한다.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적용한 현금서비스 평균금리(연 19.02%) 대비 1.5%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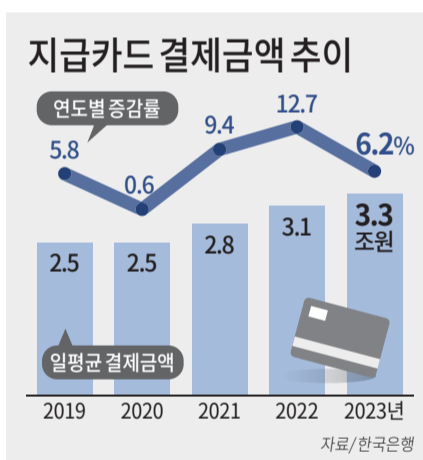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다. 전년말 대비 0.42%p 증가했다. 금융회사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연체율 증가 영향으로 카드업계가 추가로 쌓은 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대비 1조1505억원 늘어났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취약차주의 이용비중이 높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고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i119@metroseoul.co.kr

일 평균 카드결제 3.3조... 모바일 결제가 50% 넘어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카드결제 규모 1년전 대비 6% ↑
재난지원금 종료로 선불카드는 ↓



지난해 카드 결제 규모가 1년 전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위치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결제는 전체 카드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1년 전(3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6.2%)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 규모는 2조6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고, 체크카드는 6660억원으로 같은기간 4.5%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타카드는 직불형카드인 현금카드가 45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직불형카드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로 나뉘는데, 결제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은 같지만 결제방이 다르다. 체크카드 결제는 각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며, 직불카드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서

결제된다. 선불카드는 97억원으로 전년대비 48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며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결제 중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규모는 1조4740억원으로 1년만에 1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 이용한 결제규모(1.9%) 보다 증가폭이 5배 가량 컸다.

전체 결제 중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지난해 50.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0% 선을 돌파했다.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2019년 38.6%→2020년 44.1%→2021년 47.1%→2022년 48.4%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란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결제와 함께 스마트

폰이나 워치 등 모바일기기를 실물카드 대신 결제단말기(카드 단말기, QR코드 리더기 등)에 접촉하는 대면결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특히 히트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 시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48.5%를 나타냈다.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할 때 간편인증수단(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는 편의성 선호 등으로 2020년 60.8%→2021년 64.1%→2022년 66.6% 등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어음·수표 결제 금액은 일 평균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앞수표는 정액권과 비정액권 모두 감소해 13.5%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청년에 243억 캐시백 실행

1인 최대 30만원... 한 달 간 접수

우리은행은 25일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거래은행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을 보유 중인 청년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총 243억원을 되돌려 준다.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한국장학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은행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이다.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히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금융이다.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우리WON뱅킹과 한국장학재단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온 청년이라면 우리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16만명에 도달하면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우리은행은 ▲학자금대출 원금 보유 ▲연체 발생 ▲타 금융사 원금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4월말 최종 대상자 8만명을 선정, 개인별 캐시백 금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거래 여부를 떠나 모든 청년을 학자금대출 캐시백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상생금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동양생명, 업계 최다 보장 '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

기본 수술부터 新의료수술까지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구성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은 기본적인 수술은 물론 신(新)의료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하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계약으로 한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최소화해 업계 최다 질환에 대한 수술치료를 빈틈없이 보장한다. 질병수술에 대한 특약 가입을 통해 수술원인·방법·처치병원급 등에 따라 보험금을 다(多)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정급여시술보장특약S(갱신형) 가입 시 수술 외 수술 정의에서 제외되는 시술(흡인, 천자, 신경차단)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급여CT, MRI검사특약S(갱신형) 및 급여의료비지원특약S(갱신형)(연간1회한) 가입 시 수술 전·후로 시행되는 검사·통원·입원·수술·간병 등도 보장해 1개의 보험으로 각종 수술치료에 대한 빈틈없는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료납입면제특약S(수술)에 가입하고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중 하나를 진단 받은 후 수술 시에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소액암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심사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과 간편심사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으로 구성돼 유병자 및 고령자들도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심사형(미지급형)으로 20년납 종신 40세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200만원, 질병수술특약S 50만원, 상급종합병원원질병수술특약S 150만원, 재해수술특약S 50만원,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S 5만원 가입 시 남성 2만3577원, 여성 2만3172원이다.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10·15·20·30년납 중, 보험 기간은 80세·90세만기·종신 중 선택 가능하다. 단 갱신형 특약은 10년 또는 20년 만기다.

/김주희 기자 gh471@



동양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과 치료법이 발달함에 따라 신(新)의료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수술치료와 함께 업계 최다 질병 범위를 보장하는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을 출시한 만큼 많은 고객 분들이 꼼꼼하게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